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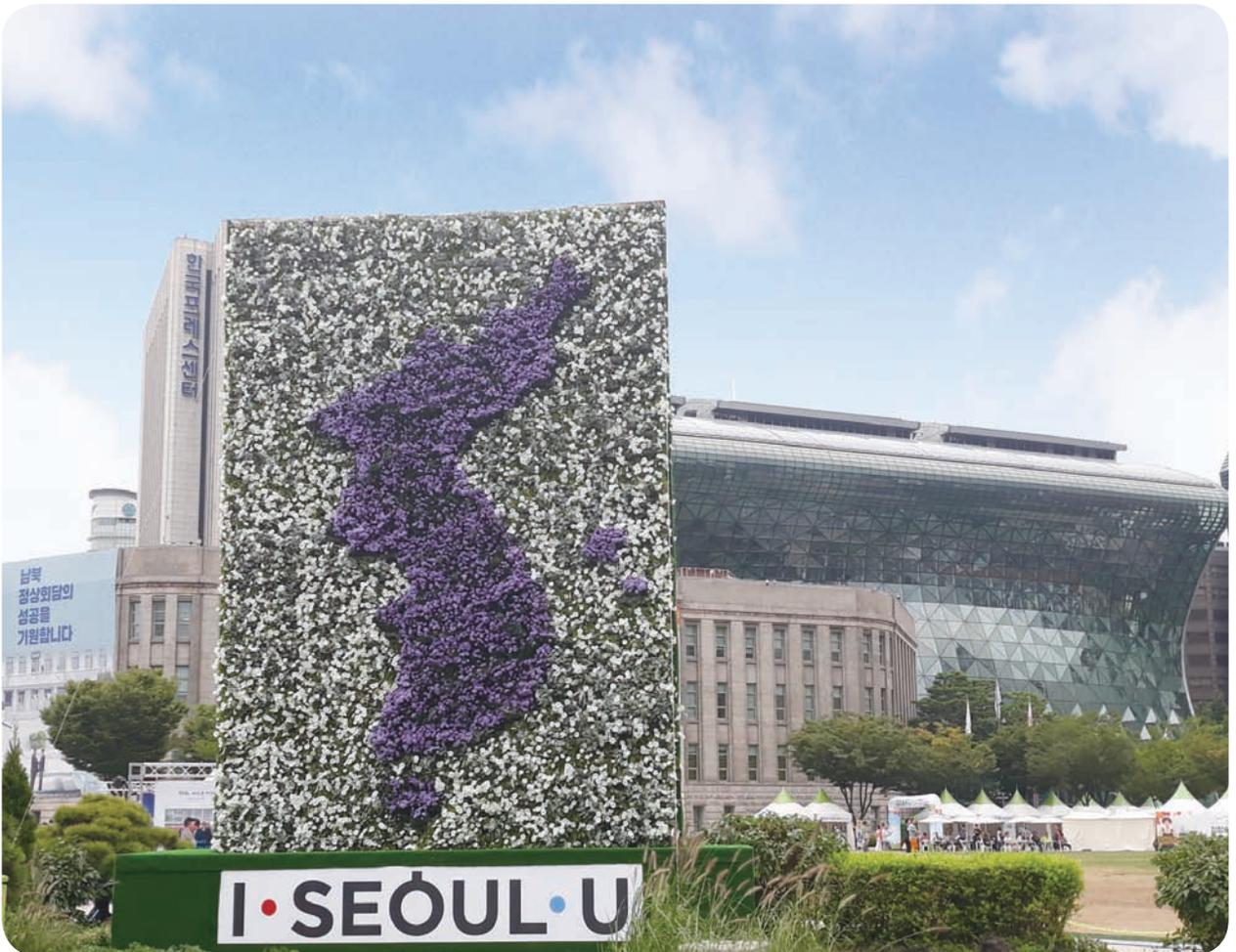
안보서울365

Emergency Planning & Civil Defense

2018 | 10월 | vol.05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소식지 제5호

<http://safe.seoul.go.kr>



02 인사말

- 서울시 비상기획관 업무를 시작하며

04 현장의 목소리

- 서초구청 민방위팀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재향군인회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08 오피니언

- 전시 긴급복구,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가?
- 국방개혁 2.0과 예비전력 정예화의 중요성
- 행복을 찾아주는 질문 한가지

13 업무상식

- 민방위대 동원절차

14 4분기 주요 일정

- 10월 총무훈련 등
- 11월 시 민방위계획 수립 등
- 12월 연말 군경위문 등

15 참여마당

- 독자 퀴즈
- 삼행시 이벤트
- 공지 사항

인사말

서울시 비상기획관 업무를 시작하며



비상기획관 갈준선

안보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서울시 비상기획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이제 시작한다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비상대비 업무를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면 할수록 막중한 책임감과 비상대비 업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며 발전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서울시 비상대비 업무를 파악하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밝은 면을 말씀 드리면, 그동안 총무계획 등 비상대비 업무 발전을 위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진 애를 썼던 흔적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비상대비 업무가 존재하고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특성상 안보위협이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관련부서의 협력과 지원을 받기 어려워 누군가의 많은 헌신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분들의 노고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또한 현재도 많은 분들이 묵묵히 맡은 분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비상대비 업무가 계획은 전반적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이 원활하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여기저기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남북관계의 화해무드 속에서는 더욱 그러한 점이 느껴져 안타까움이 더 해집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비상대비 업무의 추진은 ‘① 실용성, ② 시대성, ③ 서울시민의 공익성’을 위한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성’있는 업무는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대성’있는 업무는 비상대비 업무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방법면에 있어서 시대의 발전에 맞춰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성**을 고려한 업무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입장에 서서 비상대비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대비 업무에 대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비상대비 업무가 실무자 또는 전문가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모두의 업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안보소식지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변화의 첫 걸음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이 소식지에 시민 여러분의 의견도 담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중점관리업체를 담당하시는 비상계획관들의 의견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 전문가 여러분들도 섭외하여 고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힐링을 위하여 생활가운데 느낄 수 있는 담담한 감성의 글도 한쪽에 채워두겠습니다. 소식지의 내용은 서울시청 주도의 일방향이 아닌, 독자와 서울시청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양방향으로 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즉 독자 여러분이 독자이자 기고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보소식지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애독해주시고 좋은 내용의 글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안보소식지가 무럭무럭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안보소식지가 큰 거목이 될 때까지 저희 서울시 비상기획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서초구청 민방위팀

- 서울시 최초로 여성 민방위대 창설
-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분야 2년 연속 1위

서울시 관문인 서초구, 서초의 우리말 이름인 ‘서리풀’은 상서로운 풀이라는 뜻으로 서초구는 언제나 밝은 기운이 가득 흐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에는 한강, 뒤에는 우면산과 청계산이 위치해 있어 푸르름이 넘실거리며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 등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반포대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국내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를 펼쳐 유명해진 서리풀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초구 민방위팀은 비상대비분야 20년 경력의 베테랑 염경수 팀장의 지휘아래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이 도시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받쳐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민방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서울시 최초로 여성민방위대를 창설하여 평시는 물론 재난 시에도 현장에서 인명 구조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결실로 서초 여성민방위대는 2017년 서울시 여성민방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과 8월 을지연습 기간에는 구청광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탱크를 탑승해보고 방독면 등 국군 장비를 체험하는 안보 견학, 6.25 사진 전시회 및 음식 체험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2016-17 서울시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을 1위에 빛나는 서초구 민방위팀, 앞으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재난 안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다가가 현장에서 교육하고 힘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구의아리수 정수센터

- 지구상 200여 국가중 수돗물을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나라는 30여개국
- 구의아리수정수센터는 국가중요시설물로 지정되어 24시간 방호체계를 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이나 실상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은 가정마다 수돗물이 공급되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200여개 국가 중 수돗물을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30여개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6개 정수센터)에서는 일일 평균 33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서울시 1,000만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일일 40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수돗물은 2개 정수지를 통해 7개 구청 140만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정수센터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응집, 침전, 여과 공정인 표준정수처리, 2015년부터 표준정수처리 된 물을 한번 더 오존 살균, 활성탄을 이용한 여과처리 등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맛있고 냄새 없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171개(법정 수질항목 60, 서울시 감사항목 111)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정수센터는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방위법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등에 근거하여 방호인력에 의한 24시간 근무 및 출입통제, 이중경계울타리(높이 2.7m이상) 구축, 과학보안장비(CCTV, 진동감시센서, 감지기, 경계등



등)를 이용한 감시체계 강화 등 방호능력 요건을 완비하고 있다. 국가중요(보안)시설 관리자는 시설 경비 및 보안, 자체방호계획, 통합 상황실 운영, 지휘통신망 구축, 지역책임군부대 및 경찰서장과 경계협정서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센터에서는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외부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군, 경, 소방, 구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순분자에 의하여 염소가스 누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초동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정수와 관리를 완벽하게 처리한 것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서울의 수돗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국민안보의식
계도에 앞장서는
서울시 재향군인회

평화를 원하면
역사를 기억하라

서울시재향군인회는 1957년 10월 대한 상무회 서울회 결성으로 설립된 단체로서군국장병 위문활동 및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안보교육 및 강좌, 포럼, 강연 활동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매년 서울시청 후원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25개구 지역내 초.중.고등학생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안보현장체험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생안보현장체험은 서울 및 파주지역 2개 루트 8개 코스로 지역별 체험지역을 다양화 하고, 학교 희망지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전반기는 13개구 2,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호국·안보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참석자 중 많은 인원이 안보현장 소감문을 작성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조국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면서, 하루 빨리 통일을 기원하는 바램을 기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후반기는 9월부터 동작구 문창중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2개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나라사랑 안보포럼,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후기 공모 등 다양한 안보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안보정책 자문위원회

- 15년 발족한
시장소속 자문위원회
- 육해공 예비역 장성
15명으로 구성
- 안보정책 관련
제안 및 자문 활동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는 15년에 발족한 시장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되어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안보정책 제안과 안보관련 현안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자문회의에서는 개전초 서울지역 치안질서 확립, 국가위기관리 훈련 방향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개전초 서울지역 치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최근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고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개최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및 관련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하여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되고 군사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을 가정한 주제로, 2,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주민 통제 등 질서유지 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치안 질서 유지 형태는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도로 및 교량 진입로 차단을 통한 이동 통제가 있는데 이것은 군경, 예비군 등이 검문소, 통제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주민통제는 군대를 통한 통제도 중요하지만 평시 국민의식 향상을 통한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역사 교육 및 올바른 대북 인식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국가위기관리 훈련 방향’ 주제에서는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위기관리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을지연습은 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연습으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연습상황 조성 미흡, 비합리적인 훈련 시나리오로 군사 분야에 비해 뒤떨어진 훈련 진행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기반 조직단위 비상대비훈련’을 개발하고 있다.

충무훈련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매년 5~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제동원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지역별 종합 훈련으로서 문제점으로는 시범위주 훈련, 장비·시스템 작동점검 위주 훈련으로 실제상황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개선안으로는 다양한 전시피해 상황모델 개발 및 실질적 행동절차 숙달훈련 실시가 제시되었다. 또한 각종 훈련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처, 지자체별로 실시되어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훈련일정 조정 등의 방법으로 통합하여 실시하거나(단기) 및 근거법령 정비(장기) 등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도 안보정책자문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 안보 상황에서 서울시 안보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충실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시 긴급복구,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가?

두산건설 비상계획관
예비역 대령 **현성룡**

전시 긴급복구는 국가의 동맥을 연결하는 것

전시 긴급복구는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긴급복구 대상은 군사시설로서 군 지휘시설(미증원군 시설 포함), 비행장, 항만시설, 비상활주로, 포로수용소 등이 있으며, 국가기간시설로서 주요도로 및 고속도로(터널, 교량), 댐, 취·정수장, 철도의 교량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국가의 동맥과 같은 것으로서 만약 적의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전시 군사작전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생활 불안정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긴급복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전시 긴급복구를 위해 해당 기관별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

1. 국토교통부는 긴급복구목표를 시·도로부터 종합하여 확정하고, 하달한다.
2. 시·도는 동원업체를 지정하여 긴급복구 임무고지를 부여한다. 이때 긴급복구 목표의 성격과 관내에서 공사 중인 건설업체를 고려하여 동원업체를 지정하며, 시공평가능력 200억원(서울 3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로 선정한다.
3. 임무고지를 통보받은 동원업체는 긴급복구실시계획서를 수립한다. 이때 동원업체는 긴급복구실시계획서를 수립하여 긴급복구책임기관(평시 긴급복구목표 관리기관)의 확인, 해당 시·군·구의 협조, 시·도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긴급복구계획 수립 시 소요되는 인력, 장비, 물자가 있다. 동원업체는 긴급복구책임기관이 보유한 비축물자를 우선 반영하고, 업체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 물자를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한다. 만약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가 있을 경우 관할 시·도에 요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긴급복구계획에 문제는 없는가?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오랜 시간이 흐르다보니 긴급복구계획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1. 긴급복구용 비축물자의 즉각 활용 가능 여부이다.

과거 전쟁대비를 더 철저히 준비했던 시절에 각종 비축물자를 구매하여 지금까지 나름대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 비축물자가 부실해 지고 있다. 첫째, 비축물자는 생산된 지 약 40년 정도가 지나 부식되고 있어 페인트로 도포하였으나 비상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현 건설공사 공법에 맞지 않는 노후물자들이 많이 있다. 셋째, 이러한 노후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보직되어 있지 않다. 계획상으로는 비축물자가 있으나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실태라 여겨진다

2. 동원업체의 부족한 인력, 장비 등을 사·도에서 즉각 지원 가능 여부이다.

최근 을지연습 일환으로 긴급복구 소요 인력, 장비의 동원계획 반영 여부를 점검해 본 일이 있다. 00시와 00도를 확인 점검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사·도의 시행계획과 사·군·구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긴급복구에 대한 지원 지침은 있었다. 둘째, 해당 실무자에게 질문하니 긴급복구 지원용 동원 인력, 장비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했다. 비상시 긴급복구목표가 파괴되면 72시간 내에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면 왜 동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긴급복구의 특성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긴급복구의 특성은 첫째, 긴급복구 목표가 언제 파괴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 긴급복구 목표가 얼마큼 파괴되어 인력, 장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동원시기와 동원소요량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원계획 반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불어 전시 인력과 장비는 대부분 민간자원이므로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동원을 한 후 계속 대기시킬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등이 동원계획에 구체적으로 미 반영되지 않았나 미루어 판단해 본다.



긴급복구,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1. 긴급복구용 비축물자 관리이다.

첫째, 조달청 비축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조달청도 경제적 비축을 위해 다양한 품목을 비축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을 국가 예산으로 구매하여 일정기간 동안 비축하였다가 민간업체에 조금 저렴하게 판매한다. 때로는 물가 상승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비축물자는 모두 폐기 처분하고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일괄구매 또는 3-5개년 간 순차적으로 비축물자를 구매하고, 조달청 비축물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상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축물자 사용 매뉴얼을 제작 비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직시켜야 한다. 물자가 있으나 사용할 수 없다면 보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긴급복구를 위해 부족한 인력, 장비의 동원이다.

첫째, 사도의 시행계획 중 관(官) 소요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시도 시행계획에는 긴급복구를 위한 지원 지침만 반영되어 있는데, 긴급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인력, 장비를 동원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사도의 동원계획 실무자는 사도의 긴급복구 소요자원을 종합하여 계획에 반영하되, 전시 단계별 피해율을 고려하여 관 소요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시·군·구 실무자들의 긴급복구업무 숙지이다. 시도와 시·군·구의 전시대비업무 실무자들은 긴급복구 업무에 대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비상시 긴급복구 부족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정립해야 한다. 더불어 긴급복구업무 실무자 능력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실무자 소집교육을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긴급복구 인력, 장비, 물자 지원방침

1. 인력

- 1종 인력(보통인부) : 업체에서 우선 확보, 부족 시 지역민방위대 동원
- 2종 인력(기술인력) : 업체에서 우선 확보, 부족 시 시도에서 지원

2. 건설장비 (12개 기종) : 업체에서 우선 확보, 부족 시 시도에서 지원

- 불도우저, 모우터그레이더, 기중기, 공기압축기, 로우더, 로울러, 콘크리트
믹서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지게차, 아스팔트회니셔, 굴삭기, 덤프트럭

3. 물자(자재) : 비축물자 우선 사용, 기타 동원업체에서 확보



국방개혁 2.0과 예비전력 정예화의 중요성



국방부 전력구조개편
담당관 대령 박대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대상 중 하나는 아마도 2022년까지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상비병력의 감축은 결국 국방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병력위주에서 탈피하여 첨단전력중심의 군구조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우리 군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으로 탈바꿈시켜, 병력은 일부 감축되더라도 실질적인 전투력은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 보강과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우리 군도 첨단전력의 확보, 비전투분야 병력의 전투부대 전환, 간부비율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방개혁 2.0」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노력이다. 얼마 전 창설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중심으로 동원사단 전력보강 소요 판단 및 계획수립과 함께, 예비군 총 규모는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3년으로 조정하여 95만 명으로 축소하고, 초기작전 핵심전력에 대해 실질적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200여개의 예비군훈련장을 '23년까지 40개의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는 등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전역한 군 간부들의 숙련도를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필요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합리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국방개혁 2.0」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이다. 이러한 강한 국방을 위해 정예화된 예비전력 유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복을 찾아주는 질문 한가지

저는 7세, 5세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하면, 두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홀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해보니, 결국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성공, 재력, 넓은 집, 고급 차, 명품 옷, 엘리트 교육, 명문대 진학 등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지닌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라난 청소년, 청년들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행복보다는 불행의 흔적이 더 묻어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 20대 청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장 가까이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녀온 큰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니?" 그리고 숨죽이며 아이의 입술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때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빠와 놀이터에서 놀 때 가장 행복해요."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을 깨는 답변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머릿속이 새하얗졌습니다. 곧 정신을 차린 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붙잡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요즘 퇴근을 하면 두 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하고 뭐하고 놀까?" 최근 두 아들은 바둑에 푹 빠졌습니다. 지난 휴가 때 외할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운 뒤로는 매일 바둑을 하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저는 바둑을 할 줄 모르기에 인터넷 검색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바둑책 3권을 구입했고, 함께 공부해가면서 재미있게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 또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 해가 시작될 때 다양한 목표를 세우셨나요? 그리고 이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셨나요? 하지만 이미 기억 저 편으로 사라져버린 목표가 되었다면, 혹은 아무리 목표를 이루어도 행복보다는 불행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퇴근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하지?', '여보,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애들아 너희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니?',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세요?' 혹시 대답을 듣게 된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메모를 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고,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번 목표를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나와는 다른 타고난 능력, 혹은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했고 날마다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소중한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보시고, 실천 가능한 부분을 목표로 세워서 메모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실행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한 하루, 행복한 연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양주병원 군중목사 김주송

업무 상식 - 민방위대 동원절차

▶ 민방위대 동원요건

※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

- ①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② 무장공비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지역 군사병역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때
- ④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때

▶ 민방위대 동원발령 선결 요건 (시장 동원권 발령시)

- ①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②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요청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③ 서울특별시 지역민방위협의회(통합방위협의회) 결정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 ※ 순차적 실시,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 생략

▶ 동원 민방위대의 임무

- ①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②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③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및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방수찰 등 노력지원
- ④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방위대 동원발령 절차



▶ 민방위대 동원에 따른 조치

- 직장보장 : 동원기간 휴무 적용 등 불이익 처우 방지 (민방위기본법 제27조)
- 재해 등에 대한 보상 : 사망, 장애, 휴업에 따른 기준에 의한 보상금 지급 (민방위기본법 제28조)
- 부상에 따른 치료 : 지정 자치단체 의료시설 활용 가능토록 조치 및 의료비 부담 (시행령 제44조)

〈민방위관리팀 강진우 주무관 2133-4537〉

4분기 주요 일정

10월 OCTOBER

10일

자치구 민방위팀장과 정기 간담회

11일~19일

시-자치구 비상대비 공무국외출장

11일

민방위 업무 발전 세미나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

15일

총무계획 수립

16일~18일

민방위 업무 서울행정시스템 교육

18일

2019년 민방위강사 선발공고 게시

29일~11월1일

총무훈련

11월 NOVEMBER

21일~22일

비상대비 워크숍

26일~12월14일

하반기 민방위시설·장비 표본 점검

30일

2019년 서울시 민방위계획 수립

12월 DESEMBER

1일~15일

연말군경 위문

12일

자치구 민방위팀장과 정기 간담회

1일~31일

2019년도 민방위대원 편성 준비(자원신상관리)

10일~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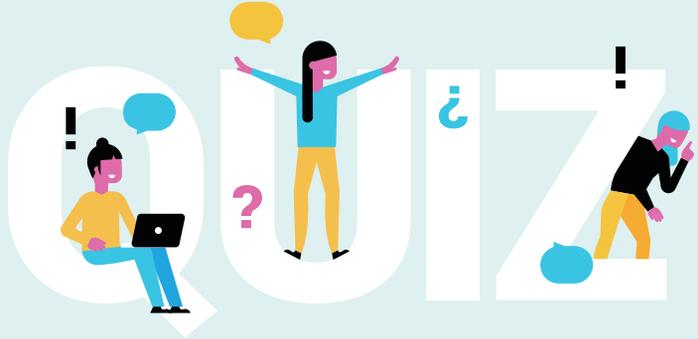
20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업무 자치구 평가

참여마당

독자 퀴즈

잘 읽어 보셨나요?
퀴즈를 풀어 봅시다.

(힌트 : 정답은 소식지 안에 있어요.)



QUIZ 1

비상대비 업무 추진
방향 3가지는?

QUIZ 2

상사로운 풀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은?

QUIZ 3

서울시 민방위대
동원 발령권자는?

삼행시 이벤트

민 방 위 로 삼행시를 지어 보내주세요



공지 사항

1.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격월로 자치구 민방위팀장과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격월 2째주 수요일 예정).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방위업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안보소식지365는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소식지에 신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kypjm@seoul.go.kr (성명, 연락처 기재)

 마 감 | 2018년 12월 10일

학도병의 편지 - 이우근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제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물내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수의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웅달쌈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

